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5. 11. 6.(목) 11:00, 배포 2025. 11. 6.(목) 06:00
 (지면) 2025. 11. 7.(금) 초간

해수부-신한은행, 창업기업 지원으로
어촌 현장에 혁신제품 보급 선도

- 해양수산업 기업제품 보급으로 어촌 상생 협력 및 환경·사회·투명경영(ESG) 실천

해양수산부(장관 전재수)는 신한은행(은행장 정상혁)과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(원장 전재우)이 주관한 ‘해양수산 신산업 및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이하 ESG) 창업기업 지원사업’을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보급했다고 밝혔다.

* 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 and 투명경영(Governance): 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

이번 사업은 2023년 12월 해양수산부와 신한은행이 ‘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 및 ESG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(MOU)’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되었다. 신한은행은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하였으며, 해양수산부는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의 혁신 아이템 개발과 해당 제품의 어촌 보급을 지원했다.

이 사업에는 해양수산분야 ESG 제품 생산 및 어촌 보급이 가능한 중소·벤처기업인 (주)앤이에스솔루션(대표 김대순), 디에이마린(대표 하상민), (주)다시바다(대표 안성관) 3개 기업이 참여하였다. 해당 기업들은 각각 ▲ 나노버블 발생 기술을 적용한 신속 패류 해감장치 ▲ 전자 어망 부이 및 수신기 ▲ 폐해너복 재활용(업사이클) 특허상품(키링) 등을 개발해 어촌 23곳의 현장에 보급했다.

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창업기업에게는 ESG 친화적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, 어촌지역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아울러, 해양수산부, 신한은행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, 한국어촌어항공단, 참여기업 등 민·관·공이 함께 어촌계 특화 프로그램 체험 및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현했다.

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“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한 상생 모델로서 해양수산 창업기업이 어촌계에 필요한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, 그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ESG 중심의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과 어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해양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규선 (044-200-6220)
	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희재 (044-200-6225)
	신한은행 상생금융부	책임자	부 장	강승표 (02-2151-3400)
		담당자	팀 장	김현곤 (02-2151-3523)



참고

해양수산 신산업 및 ESG 창업기업 지원사업 성과

□ 주요 성과

- 해양신산업 기업 3개 사 선발 및 제품생산을 지원하여 23개 어촌계* 물품 보급을 통한 상생협력 및 ESG 경영 실천
 - * 경기(1개), 인천(4개), 부산(2개), 충남(5개), 강원(3개), 전북(4개), 경남(2개), 제주(2개)
- (앤이에스솔루션) 나노버블 발생 기술 활용 패류 해감장치 개발

해감장치 사용절차	패류 해감장치
나노버블발생장치 (오존발생기 포함) 바지락 투입 바지락 세척조 바지락 해감조 실링 포장기 해감 포장 바지락	

- (디에이마린) 태양열 전자 어망 부이 수신기·발신기 개발

태양열 전자 어망 부이 발신기	태양열 전자 어망 부이 수신기
	

- (다시바다) 폐해녀복 업사이클 특화상품 개발

신례리어촌계	법환동어촌계	동삼동어촌계
		

- 민·관·공 협력을 통해 제주 법환어촌계(법환포구), 경기 종현어촌계(구봉도)를 방문하여 플로깅 활동 등 어촌환경 정화활동 실시

순번	지역	어촌계명	활동일자	주요 내용
1	제주	법환어촌체험휴양마을	2025. 3. 8.(토)	폐해녀복 업사이클 키링 만들기 어촌계 플로깅 활동(법환포구)
2	경기	종현어촌체험마을	2025. 5. 10.(토)	바지락 캐기 체험 어촌계 플로깅 활동(구봉도)